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식품가공업체 등 농업종합자금 지원 확대
소비자가 참여하는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

거시경제 동향

2012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

현장 여론 조사

(KREI 리포터·통신원)

2012년 농사 애로사항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판매금액별 농어촌 마을 특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주요 농정 이슈_1

식품가공업체 등 농업종합자금 지원 확대

※ 본 자료는 12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식품가공업체 등 농업종합자금 이용 쉬워진다」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개요

- (사업의 목적) 대출취급기관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지원 내용) 원예특작, 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 농산물가공업육성사업,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천적산업육성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등 추진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 운영자금을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지원
- (사업대상자) 농업인, 농업법인, 자가유통저장업자, 농산물가공업자, 농기계생산업자, 농기계보관창고사업자, 농기계수리업자, 종자사업자, 천적생산업체, 꿀·녹용가공식품생산업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농어촌민박사업자 및 우수기술사업화 업체·농업법인
※ 단, 직업보유자, 자영업자,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 조건)
 - **지원한도: 총사업비의 80%이내**(단, 운영자금은 1회전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
 - 금리: 연리 3.0%
 - 상환조건: 시설자금 3~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개보수자금 2~3년 거치 3~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이내 일시상환, 농기계구입자금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

□ 주요 내용

- (농업자금 지원규모 확대) **내년도 농업종합자금 융자금 지원규모를 2조 210억 원**(금년 1조 8,210억 원 대비 11% 증액)**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 도모**
※ ('12) 1조 8,210억 원 → ('13) 2조 210억 원(11% 증가)

○ (농업종합자금 지원대상 기준 완화)

- 전업적 직업보유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 융자지원 대상이 되는 소득 상한을 **현행 3,0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농업종합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

※ (현행) 3,000만 원 → (개선) 3,700만 원

- 농산물가공사업 지원 대상 기준을 '국산' 농산물 사용자로 한정하던 것을 **주원료의 농산물이 '국산'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계획

※ (현행) '국산농산물' 사용자로 한정 → (개선) 주원료가 '국산'인 경우에도 지원가능

- 기준을 완화하게 될 경우 주원료로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면서도 맛과 향 등 **부가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입 원료를 사용하는** 다수의 **농식품 가공업체들이** 운영자금 등 **정책자금을 보다 손쉽게 이용**

※ 예) 배추김치(1kg): 국산 98.5%(배추 68, 무 10, 고춧가루 5, 마늘생강 3.5, 쪽파 등 채소류 5, 젓갈 5, 찹쌀 2), 수입 1.5%(설탕 등)

○ (산지 농산물 유통·저장시설 지원의 일원화) 산지 농산물 유통·저장 시설은 **농산물유통센터(APC)를 중심으로 지원을 일원화**하여 농업 정책사업간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계획

- '14년부터는 그동안 개별 농가단위로 지원이 가능했던 **농산물 자가 유통·저장시설에 대한 지원 중단**

주요 농정 이슈_2

소비자가 참여하는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

※ 본 자료는 12월 11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소비자가 참여하는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지원 배경

○ 유통환경 및 소비형태의 변화로 소비자의 **소규모 맞춤형 구매 요구가 증가**

※ '11년 맞벌이가구는 전국 가구의 43.6%, 1인가구는 23.3%,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1.4%

○ 그동안 정부 지원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생산자 위주의 직거래에 집중**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제철 꾸러미' 등 **생산자가 재배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하는 형태**에 머물러 있음.

※ 선진국: **소비자가 생산계획 수립부터 수확까지 직접 참여**하고, **품·홍작에 따른 위험도 공유**

※ 제철꾸러미: 생산자와 소비자가 배송 받을 물품 종류·배송방법·배송주기 등에 관한 계약을 맺고 비용을 선납하면 생산자는 해당 물품 배송

□ 주요 내용

○ 소비자 참여형 농산물 직거래¹⁾를 대안적 생산·유통모델로 발전

시킴고자 2013년 정부안에 97억 원(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을 신규 반영

※ '13년 지원 내용: 조직화 및 홍보 7억 원, 직매장·작업장 설치 90억 원 (총 97억 원)

○ 소비자 참여형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단체에 소비자 조직화를 위한 계약자금과 홍보·마케팅비를 지원하여 **소비자·생산자 조직화 유도**

※ 소비자 조직화 계약자금, 홍보·마케팅 지원 7억 원

1) 소비자 참여형 농산물직거래는 '로컬푸드 운동'의 대표적 실행방식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계약을 맺어 소비자가 농산물의 생산유통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함.

- 통합정보·경영지원시스템 구축, 농산물 선별 소포장 등 공동 작업장 설치, 직매장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계획**

※ 농산물 선별 소포장 등 공동 작업장: 저리 장기 융자(3%, 3년 거치 7년 상환) / 개소 당 4억 원 한도

※ 직매장 설치: 대도시에는 소비자가 운영하는 직매장(3% 용자, 개소 당 2억 원 한도), 중소도시에는 생산자가 운영하는 직매장(30% 국고지원, 개소 당 3억 원 한도)을 지원할 계획

거시경제 동향

2012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

※ 본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2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전반적 동향

- **2012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6% 하락**(전년 동월대비 0.2% ↓)

- **농림수산물**: 채소류와 과일류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1.8% 하락**(전년 동월대비 0.5% ↓)

- **공산품**: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석유 및 화학제품이 내리고 수요부진 등으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등도 내려 **전월대비 0.9% 하락**(전년 동월대비 1.1% ↓)

- **서비스**: 운수 및 금융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2% 하락(전년 동월대비 1.3% ↑)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12.8월	9월	10월	11월	'12.8월	9월	10월	11월
총 지 수	1000	0.7	0.7	-0.7	-0.6	0.3	1.0	0.2	-0.2
농 립 수 산 품	43.6	5.5	5.9	-8.8	-1.8	-2.9	7.4	3.3	-0.5
곡	11.0	-0.2	-1.0	0.1	5.9	5.7	4.7	5.4	7.1
채 소	7.4	13.4	29.5	-22.5	-6.8	-3.4	30.2	18.3	18.4
과 실	5.3	11.2	2.2	-1.4	-17.3	16.9	30.5	32.1	9.8
축 산 물	12.0	0.9	-3.6	-7.9	4.9	-11.8	-10.2	-12.0	-15.7
수 산 식 품	5.3	0.9	2.1	-2.5	-2.7	-12.7	-4.2	-6.6	-8.2
공 산 품	644.8	0.6	0.7	-0.6	-0.9	-0.2	0.0	-0.7	-1.1
석 유 제 품	59.7	3.2	3.6	-1.4	-3.1	2.7	5.2	2.4	-0.8
화 학 제 품	55.2	1.8	2.3	-0.1	-1.4	-1.7	-1.0	-0.8	0.7
1 차 금 속 제 품	65.6	-0.8	0.6	-2.0	-0.8	-7.5	-6.4	-7.1	-7.1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93.7	-0.5	-0.9	-1.1	-1.2	-0.5	-2.1	-3.1	-3.6
전 력 · 수 도 · 가 스	264.4	0.1	0.0	0.2	-0.2	1.0	1.3	1.2	1.2
서 비 스	61.6	0.1	-0.7	0.7	-0.2	2.3	1.5	1.6	1.3
운 수	27.4	0.9	1.4	-0.2	-0.9	-2.8	0.1	-0.8	0.2
금 융	2.5	-0.4	-0.4	3.9	-0.5	-0.9	-2.4	0.8	1.0
전 문 서 비 스	43.3	-0.1	0.5	-0.1	-0.1	2.1	2.4	2.3	2.3
기 타 서 비 스	31.1	0.1	0.5	0.1	-0.7	3.3	2.9	2.7	2.4

□ 특수분류별

- 식료품은 전월대비 1.0% 하락(전년 동월대비 1.1% ↑)
- 신선식품은 전월대비 9.3% 하락(전년 동월대비 12.7% ↑)
- 에너지는 전월대비 1.9% 하락(전년 동월대비 1.2% ↑)
- 신선식품및에너지 이외는 전월대비 0.3% 하락(전년 동월대비 0.6% ↓)

<특수분류 지수 등락률>

단위: %

구 분	가중치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12.8월	9월	10월	11월	'12.8월	9월	10월	11월
식 료 품	81.3	2.6	3.4	-4.7	-1.0	0.2	5.7	3.4	1.1
식 료 품 이 외	918.7	0.6	0.4	-0.3	-0.7	0.4	0.6	-0.1	-0.3
신 선 식 품	16.4	10.8	17.5	-13.8	-9.3	-3.8	26.9	19.4	12.7
신선식품이외	983.6	0.6	0.4	-0.5	-0.5	0.4	0.6	-0.2	-0.4
에 너 지	93.8	2.5	2.2	-0.8	-1.9	4.4	6.3	3.1	1.2
에너지이외	906.2	0.5	0.5	-0.8	-0.5	-0.2	0.3	-0.2	-0.3
I T	175.1	-0.2	-0.1	-0.4	-0.6	-1.3	-1.5	-1.6	-1.8
I T 이 외	824.9	0.9	0.8	-0.8	-0.7	0.6	1.4	0.5	0.0
신선식품및 에너지 이외	889.8	0.3	0.2	-0.4	-0.3	-0.2	-0.3	-0.6	-0.6

현장 여론 조사
(KRE 리포터·통신원)

2012년 농사 애로사항

□ 2012년 농사와 관련된 애로사항 관련 여론

○ 기상여건, 수입개방, 신종 해충으로 농사 차질

- 농사의 시작인 봄에는 극심한 가뭄, 여름에는 엄청난 폭우, 방제를 해도 또다시 생겨나는 신종 해충, 가을 수확기에는 대형 태풍이 불어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그로 인해 농작물 수확은 급격하게 감소하여 결국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흉년농사가 되었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기후와 FTA에 의한 수입개방, 신종해충 등 많은 애로사항에 대하여 관계당국에서 속히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랍.<충남 청양, 장석우>

-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첫째, 인력수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작물을 심을 때와 수확할 때 어려움이 있음. 그래서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은 점점 줄이고 밭과 논을 과수로 변환하는 농가들이 늘어나는 추세임. 둘째, 가뭄때 물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결실 손실이 오고 수확량이 줄어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가 있음. 셋째, 새, 고라니, 너구리,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습격으로 인한 피해가 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포성소리도 내보고, 망도 쳐보고, 철사를 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소용이 없어 결국은 수확시기를 앞당기든가 아니면 곡식이 여물 때까지 먹히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임.<대구 수성, 김영국>

○ 일손부족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

- 농업은 자연과 공존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적기에 일손이 필요한데 요즘은 제 때 투입해야 하는 일손을 구하기 어렵고, 봄에 시작해 놓고 나면 가을 걷이가 끝날 때 까지 쉴 새 없이 일하다 보니 건강에 적신호가 와도 몸 관리는 가을걷이 이후로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임. 또한 작물의 시세 또한 안정적이지 못해서 애써 농사지어도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특히 가장 어려운 애로사항은 기상여건으로 초봄 서리피해, 뜻하지 않은 긴 장마, 긴 가뭄, 이상 고온과 저온, 태풍, 우박, 초가을 냉해 등 일기가 순조롭지 못하니 병해충은 극성스럽고 작물들은 스트레스에 시달려 수확이 좋지 않아 농업인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음.<경북 영양, 김갑순>

- 금년도 농사는 연이은 3개의 태풍으로 인한 악조건 때문에 벼 백수피해와 과실 낙과피해 등 극심한 재해가 농민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한해였음.
<전남 순천, 김종근>

○ 농자재 가격 상승, 농산물 가격 억제, 판로의 어려움

- 농업을 하면서 어려움은 아주 많지만 그 중에 꼽으라면 농자재 가격 상승문제임. 농산물 가격이 조금 올라가거나 올라갈 조짐이라도 보이면 언론에서 떠들어 대는데, 농자재 가격이 상승한다고 호들갑 떠는 것은 본적이 없음. 시군이나 농협에서 정책적으로 조금 보조를 해준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부산 기장, 최시훈>
- 농자재 가격의 상승만큼 농산물가격이 따라가질 못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농산물가격을 너무 억제하려 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됨. 이리다보니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농가부채가 늘어나는 문제가 큰 과제로 남게 되는 현실임.<경기 남양주, 김용덕>
- 유기농이나 친환경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판로걱정 때문에 어려움이 많음. 고령화된 농민들이 인터넷이나 홈쇼핑 등은 생각지도 못하니 어쩔 수 없이 수수료를 내고 중간 상인에게 위탁하여 팔 수 밖에 없는 실정임. 농산물 유통과정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경남 김해, 김병철>
-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중국 등에서 수입해서 농산물 가격이 또 떨어지게 되는데 정부나 소비자는 농산물 가격이 낮아져 좋겠지만 농민입장에서는 농산물 수입을 적정선에서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함. FTA로 인해 농산물이 더욱 대량으로 수입되어 농산물 가격은 자꾸 떨어지는데 자동차, TV, 냉장고, 휴대폰 등은 수출이 잘되니 농민들한테 일정액을 보조해 주어야 마땅함.
<전남 화순, 나종주>

□ 기타 농업·농촌 관련 여론

○ 농업재해보험의 보상기준 재검토 필요

- 지난 태풍 때 우리 농가는 사과 60%, 이웃농가는 대추 70% 이상 초토화 되다시피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조사에서 우리 사과는 51%, 이웃농가 대추는 30% 정도로 피해규모가 산정되어 보험금만 고스란히 날린 꼴이 되었음. 그나마 보험금을 일부 탈 수 있다 하여도 사고경력으로 이듬해 보험을 다시 넣을 때 보험료율이 300% 가까이 올라 농민을 위한 농산물 재해보험이 아니라 보험회사만 배불리는 보험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 상황임. 농업재해보험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는 적정기준으로 상향조정되도록 연구해 주시길 바람.<경북 군위, 윤석구>

○ 과소비되는 허례허식, 매장문화 규제 필요

- 과도한 허례허식은 법을 통해 강제적으로 규제해야 농어촌에도 그 파급 효과를 가져와 가게 빛을 줄일 수 있을 것임. 또 요즘 도로를 지나다보면, 우리나라 산천 곳곳이 호화스러운 분묘와 비 등으로 하루가 다르게 묘지로 변하고 있음. 임야는 법적 규제를 하지 않는지, 안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며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으므로 재산세를 부과시키거나 유예기간을 두고 강제 축소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경기 안성, 임충반>

○ 유기·친환경 농사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야

- 젊은 세대는 유기농 제품을 인터넷을 이용해 판매하지만, 고령 농업인들은 이것도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친환경 농산물 판매 지원정책이 필요함. 먼저 유통과정부터 개선되어야 하며, 유기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지원도 필요함.<경남 김해, 김병철>

○ 폐농약을 생활폐기물로 지정해 수거 요망

- 사용하고 남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농약을 수거하지 않아 농가의 창고마다 수북이 쌓이고 있으며 폐농약을 하수구나 산에 버리는 경우가 많음. 농가에서 쓰고 남은 농약을 생활폐기물로 보고 지자체들은 수거 및 관리 책임을 갖고 처리해 주길 바람.<전남 순천, 김종근>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12월 10일~14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김치 속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예야

- 정부, **내년 하반기부터** 김치류 중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 의무화, 양고기·배달용 돼지고기·명태·고등어·갈치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한다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해 공포할 예정**, 개정안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 부터 시행. 현재 김치류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두 가지 원료를 표시하도록 돼 있어 배합비율이 낮지만 원가비중이 높고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고춧가루는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함께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현재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대상인 배추김치는 배추의 원산지와 함께 고춧가루의 원산지도 함께 표시**하도록 할 방침. 또한 현재 양고기와 족발 등 배달용 돼지고기는 수입·유통량이 많지만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국산으로 판매될 우려가 있으며, 최근 일본산 수산물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출 등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어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을 양(염소 등 산양 포함)고기와 배달용 돼지고기·명태(황태 등 건조한 것은 제외)·고등어·갈치까지 확대**

자료 : 농민신문(2012.12.14)

□ 분기별 한우고기 권장가 발표...소비자가격 조정 유도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 경락가격과 소비자가격이 연동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한우가격연동제의 일환으로 **한우고기 권장가격을 매분기마다 발표**할 예정. **권장가격을 발표함으로써 정육점이나 대형할인매장 등의 한우고기 가격조정을 유도**하기 위함. 분기별(3·6·9·12월)로 발표될 예정인 **▲한우고기 권장가격**...16개 시도별로 정육점과 농협 판매장, 대형할인매장 등 3개 판매유형으로 나뉘어 등급별(1등급 이상)로 발표, **▲권장가격**...유통

마진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데, 연구기관에 의뢰해 권장가격 산출방식이 이미 마련된 상태. 이와 함께 수도권에 한우 알뜰판매장을 운영해 주변 한우 판매점의 가격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될 예정. **적정 가격이 산정·발표됨으로써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있지만, 유통업체들이 권장가격보다 높게 판매해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권장가격 발표만으로는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일부 있음.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2.12.10)

□ 아역비 정율제 시행...농가 ‘반발’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2013년부터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하역비를 정율제(1.02% 선)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출하농가들이 하역비 부담에 대한 가중을 우려하며 반발. **정율제 시행될 경우 고품질 농산물 출하자 비용부담 가중***. ▲일부 농가...정율제 시행될 경우, 특 상품의 높은 수취가격을 받는 농산물은 가락시장에 출하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 ▲학계 전문가...하역비 정율제 적용은 농가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 비용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
 ※ 정율제 적용 이전: 현재 배 15kg 한 박스에 대한 하역비는 240원
 ※ 정율제 적용 이후: 현재 상품 배 시세 55,000원에 대한 하역비 550원, 하품은 25,000원에 해당하는 250원 가량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2.12.11)

□ 농식품 수출정보 원스톱 지원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12.8일, **우리 농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정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수산식품 수출정보(KATI)’ 통합 지원 서비스 정식 오픈**. 최근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 및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폭 등에 따라 **쉽고 빠른 정보이용 환경을 구축**하고, 필수 콘텐츠 확충을 통해 **수출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KATI 서비스의 주요내용...** **▲KATI에서 정보 이용 및 사업신청까지 통합지원 서비스 구축**,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안전정보를 통합하여 일괄 제공**, **▲해외시장동향 및 한국산 검역 불합격 사례 등 필수 콘텐츠 대폭 확대**, **▲해외바이어에게도 한국의**

상품정보 제공 및 거래제의 기능 구축 등, ▲정보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모바일 환경에서보다 편리한 정보이용환경을 구축, ▲뉴스레터 시스템 운용으로 고객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 전달

자료 : 원예산업신문(2012.12.12)

□ 내년부터 국민연금 수령시기 늦춰져

- 현재 60세 국민연금 수급연령 → 2013년부터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 로 각각 변경. 또한 조기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55세부터 신청할 수 있었던 조기노령연금도 내년부터는 출생 시기별로 56~60세가 돼야 수령 가능. 1953~1957년생은 소득이 없다면 이달 말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거나 61세(1953~1956년생) 또는 62세(1957년생)에 노령연금 수령. 이는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은 1953~1957년생 가입자들에게 제도 변경에 대한 개별 안내 시행

자료 : 농민신문(2012.12.12)

□ 농식품부,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발표

- 농식품부, 12.6일, '2012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사진) 발표. 표준설계도는 가족 구성원의 특징과 연령 등에 따라 8가지 종류로 제작. 본채 전용 면적은 85㎡(26평) 이내, 에너지절감 시스템과 내진설계를 적용. 농어촌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된 주거생활 환경을 반영하고, 설계 비용을 625만 원 가량 절감. 표준설계도를 전국 시·군·구청과 한국농어촌 공사 지사에 배부할 예정이며, 기존에 개발한 79종을 포함, 총 87종의 주택유형을 농어촌 종합정보 홈페이지인 웰촌(www.welchon.com)에서 열람·출력 가능

자료 : 농민신문(2012.12.10)

연구 지원 정보

판매금액별 농어촌 마을 특성

※ 본 자료는 2012년 12월 13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 농림어업총조사 판매금액별 농어촌 마을 특성」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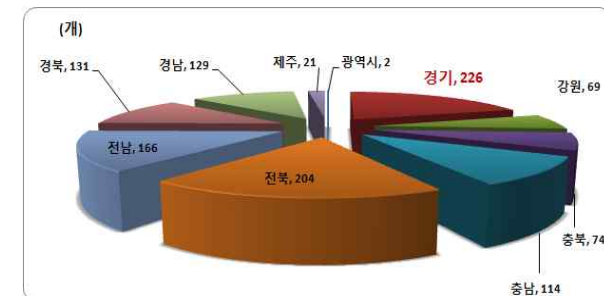
□ 총괄

-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농가의 판매금액(이하 “판매금액”)별 행정리(마을)로 집계한 결과임.
- 농가 호수가 3호 미만인 마을을 제외한 35,457개(98.4%) 마을을 분석

□ 판매금액별 농촌마을 특성

- 2010년 농가당 농산물 평균 판매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농촌 마을은 전체 마을의 3.2%(1,136개)이며, 경기(226개)에 가장 많이 분포
- 전국의 농촌 마을(35,457개) 중 농가당 농산물 평균 판매금액이 2천 5백만 원 미만 마을은 80.6%(28,580개), 2천5백~5천만 원 16.2%(5,741개), 5천만 원 이상 3.2%(1,136개)임.
- 5천만 원 이상 농촌 마을(1,136개)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 226개(19.9%) > 전북 204개(18.0%) > 전남 166개(14.6%) 순으로 분포

<판매금액 5천만 원 이상 농촌 마을의 지역별 분포>



○ 평균 판매금액이 높은 농촌 마을은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낮음.

- 5천만 원 이상 농촌 마을의 경영주 평균 연령은 59.9세로 전체 마을 (63.2세)에 비해 젊으며, 경력은 33.0년(전체 35.6년)으로 짧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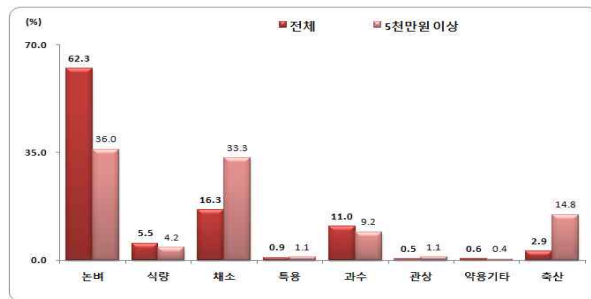
○ 평균 판매금액이 높은 농촌 마을일수록 전업농가나 채소·축산 농가 비율이 높음.

- 5천만 원 이상 농촌 마을의 전업비율은 65.9%이며, 1인당 경지면적은 2.0ha임.

- 5천만 원 이상 농촌 마을의 경영형태는 논벼(36.0%) > 채소(33.3%) > 축산 (14.8%) 순임.

※ 전체 마을 경영형태: 논벼(62.3%) > 채소(16.3%) > 과수(11.0%) 순임.

<5천만 원 이상 농촌 마을의 경영형태>



○ 평균 판매금액이 높을수록 농업관련 시설이 「30분 이내」에 위치하는 비율이 높고, 도농교류 활발

- 5천만 원 이상 농촌 마을은 30분 이내 거리에 축산물종합처리장 (3.2%p), 농수산물가공공장(2.6%p), 미곡종합 처리장(2.5%p)이 있는 비율이 평균보다 높음.

- 전체 농촌 마을 중 20.5%는 도농교류 활동을 하며, 평균 판매금액이 높은 마을일수록 농수산물 직거래, 자매결연을 많이 함.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